

**전일동향**

전일대비 1.60원 하락한 1,461.80원에 마감

4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60원 하락한 1,461.8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40원 하락한 1,461.00원에 개장했다. 오전장에서 환율은 위안화 강세, 증시 외인 순매수세에 1,455.50원까지 저점을 낮췄다. 이후 환율은 역외 롱플레이에 낙폭을 축소하며, 1,461.80원에 증가(15:30 기준)를 기록했다. 주간장중 변동 폭은 6.7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78.72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증가(15:30)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461.00	1462.40	1454.10	1461.80	1459.60
	엔화	979.36	984.40	945.10	980.42	-
	유로화	1533.79	1552.94	1476.58	1550.78	-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2.04	-6.77	-14.07	-28.03
	결제환율(수입)	-1.6	-5.82	-12.22	-24.62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경기 둔화 우려에...1,450원대 초중반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461.80) 대비 7.45원 하락한 1,452.0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관세 전쟁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및 유로화 강세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확대하자, 중국과 캐나다는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도입하고 상응하는 비관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유로화는 EU의 재정준칙 적용 유예를 통한 8천억 유로 규모의 재정 증대 계획 발표 및 독일의 5천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기금 설치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달러화는 트럼프 발 관세 전쟁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 우려와 유로존 재정확대 발표에 따른 유로화 강세에 0.95 하락한 105.66을 기록했다. 금일 환율은 유로화 강세 및 달러 약세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460원부터 다시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한 수출업체 네고 물량도 환율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내증시 외인 자금 유출 등에 환율의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보인다.

<b>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b>	<b>1447.80 ~ 1457.80 원</b>
----------------------	----------------------------

<b>체크포인트</b>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896.4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7.45원 ↓
	■ 美 다우지수 : 42520.99, -670.25p(-1.55%)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5.6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5408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